

김제농생명고와 아시아종묘의 '행복한 동행'

국내 유일 종자산업과 학생들과의 만남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다. 자라서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잠재성이 엿보인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농업, 그것도 종자산업이라는 작고 소중한(?) 분야에 일찍이 출사표를 던진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곳은 김제농생명마이스티고등학교(이하 김제농생명고). 이 학교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종자산업과가 존재한다. 농업이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하는 지금,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제를 찾았다.

뒷밭에서는 꿈도 함께 자란다

김제농생명고 종자산업과 학생들을 처음 마주친 건 지난해 10월 열렸던 국제종자박람회장에서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의 인사들과 관람객들이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

한 종자산업과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종자산업과는 종자산업 및 시설원예분야 전문인을 육성하는 학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종자코팅·조직배양·수경재배 등의 실습 결과물을 전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제농생명고의 전신은 지난 1950년에 개교한 김제농업중학교다. 2015년 제11차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티고) 지정에 따라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고, 2017년 2학급으로 이뤄진 종자산업과가 개설됐다.

늦가을로 접어드는 지난해 연말, 김제농생명고를 찾은 날은 마침 1학년 학생들의 양파 육묘 실습이 한창이었다. 종자산업과는 한 학년이 36명으로 이뤄져 있다. 한 반에 18명씩, 2개 반이 있다. 각 학년의 수준과 수업 커리큘럼에 맞춰 1학년 양파, 2학년 수박, 3학년은 고추를 대상으로 작물 실습이 진행된다. 그 모습을 아시아종묘 김제육종연구소 김태운 연구원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도하고 있었다.



양파 육묘 실습에 한창인 종자산업과 학생들

한 달에 2~3번, 김제육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실습을 하고 학생들과 소통한다.

넓지 않은 실습용 텃밭이지만 학생들의 손길이 제법 야무지다.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장난스레 담소를 나누며, 때로는 진지한 눈빛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수업에 임한다. 육묘된 양파들이 순서대로 땅 속에 자리를 잡는다. “학생들, 더 깊이 심어야 합니다! 손에 힘을 줘서 땅에 고정해주세요!”

문득 궁금해졌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 마냥 말하고, ‘농촌과 농민이 제일 만만해 언론과 정치도 함부로 다루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나라에서 10대 학생들은 어떻게 농생명고등학교에 진학해 미래의 꿈을 꾸고 있을까.

“학생들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절반 정도는 김제나 인근지역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의 자제들이에요. 이 중에는 후계농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접근을 한 친구도 있죠.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옛날에 텃밭에서 식물을 키웠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농대나 관련대학 학과 진학을 꿈꾸거나 종자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고요” 종자산업과 김단비 선생님의 말이다.



11

미래농업을 책임질 MZ들

학교 전체 정원의 10% 정도는 서울이나 광주 등 감제 외의 지역에서 오기도 한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해외연수 등을 통해 선진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학생들이 점차 더 많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2학년 교실로 장소를 옮기니 감제육종연구소 수박육종팀 최수복 연구원의 수박 채종실습이 한창이다. 이날 실습에 사용된 품종은 아시아종묘의 애플수박 ‘쫄쫄미’와 망고수박의 일종인 ‘블랙허니’. 장난기 많은 학생들답게 제법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다가도, 실습을 하는지 수박 먹방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돼버린 모습에는 웃음이 난다.

“수업을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자율성에 맞추어 과채류를 친숙하게 대하게 하려는 방식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오늘 실습에 사용한 작물은 연구소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건데, 여름이나 겨울 등 계절학기에는 고등학생들뿐 아니라 근처의 농대 학생들이 저희 연구소에 방문해서 실제 작물을

견학하고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최수복 연구원의 이야기다.

종자산업과 학생들의 1년 스케줄은 여느 농업인들과 다르지 않게 쉴 틈 없이 뻘뻘하다. 작기에 맞추어 종자를 생산하고 종자 기능사 등 자격증 준비도 해야 하며, K-SEED 서포터즈 등 봉사활동을 비롯해 동아리 활동까지. 학생들의 달려엔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빼곡했다.

얼마 전 만났던 다기능농업연구소 박상식 대표는 ‘농업은 더 이상 고령층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생산 중심 농업은 육체노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유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업의 기능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 시설원에 작물 컨설턴트를 꿈꾸는 학생부터 세계적인 품종 개발 육종가, 스마트팜 사업가, 농업정책을 만드는 행정가 등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장래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나라 농업도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기반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미약하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다.



김제농생명고의 '될성부른 떡잎'들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평가됐던 농업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민·관이 앞장서 그 토대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말이다.

아시아종묘 홍보출판팀 박재호 대리



1 2 3 수박 채종실습을 비롯해 다양한 교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4 5 미래의 멋진 농업인을 꿈꾸는 중자산업과 이지우, 최시은 학생